

책을 팔며 산다는 것은

서점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분위기에 취해

탁무권(노원문고 대표)

저는 책읽기를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종종 매장으로 가서 책을 읽곤 합니다. 한 권 한 권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면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야말로 서점 경영이라는 목직한 마음의 부담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점은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가고 느끼고 지혜를 배워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차분한 몸짓으로 저와 함께 책을 읽거나, 책을 구매하는 독자(고객)들을 보노라면, 그들에게서 은은히 풍겨 나오는 맑은 기운들이 서점 공간을 가만가만 채워나가는 듯합니다. 그것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서점만의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 느낌이 무척 좋습니다.

또 하나는 책을 판다는 기쁨입니다. 좋은 책을 끊임없이 확보하고, 준비하고, 고객에게 정직하게 챙겨주는, 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 그것이 책을 판매하는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모든 도서를 전부 구비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도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해드리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책을 찾습니다. 독자들이 원했던 도서를 받고 고마워하고 밝게 웃는 모습은 다른 업종의 매장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서점만의 보람 중 하나입니다.

책을 판다는 것은 또한,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서점을 경영하다보니 지역단체의 여러 사람들로 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뜻있는 일을 같이 하지는 제의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서점 차원에서 이같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점이 해야 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데, 그런 활동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얻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 뜻있는 일의 발견, 이것은 제게 즐거움과 보람을 키워주는 또 다른 축매입니다.

서점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적 역할을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령, 상계동 지역은 교육열이 높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몇 해 전부터 자녀교육과 관련된 강연, 강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매장도 신설했는데, 개방식으로 진열해서 자유롭게 부모와 자녀들이 독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실과 세미나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는 가배교육의 교구활용 프로그램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형편이 안돼 미뤄왔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구프로그램을 해주게 되어 좋았다”며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곤 합니다. 수익성만 따져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점하는 사람으로서 커다란 보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이나마 서점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입니다. 지역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상계동 나눔의 집’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함이 옳겠지만, 지면을 다른 서점을 경영하는 다른 분들도 좋은 뜻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노원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저희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책과 맺은 소중한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책을 팔면서 축복처럼 얻는 여러 기쁨들이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책의 숲으로 갑니다. ☘